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탁월한 령도

김 성 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여야 하겠습니다.》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이다.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치시고 백전백승의 전통을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경축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교양거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사적교양거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사상교양거점인 동시에 혁명력사연구와 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기지, 학술연구거점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전승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새롭게 일떠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도록 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령도업적을 체득시키는 위대성교양장소이며 후대들에게 전세대들이 수령님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승리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기본거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여 전승 60돐을 맞으며 전승기념관을 새롭게 잘 꾸릴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는데 있지만 전승기념관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새 세기의 창조물로 꾸리는것은 우리 대에 반드시 해놓아야 할 력사적과제 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다시 꾸리면서 사적물들과 전시품들을 새로 많이 발굴제작하여 전시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특히 지금까지 모시지 못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들을 다 발굴하여 모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 혁명력사에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며 그런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이 적다고, 수령님의 전승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더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들을 발굴고증하는 사업을 당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새로 건설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위치도 확정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나날 전승기념관의 모든 요소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과 영상작품들을 모시고 사적자료들도 풍부히 전시해놓아 누구나 전승기념관에 와보면 미제를 타승하신 수령님의 위대성을 폐부로 절감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술배렬을 잘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대학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집대성한 하나의 립체적인 대전승관, 군사박물관으로 완벽하게 일떠서고 전승기념탑도 새롭고 특색있게 개건되었으며 승리상을 축으로 한 야외교양마당의 모든 공간과 요소들도 의의있게 잘 꾸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길이 전해갈수 있는 위대성교양과 반제계급교양, 승리전통교양의 대전당이 마련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전승 60돐이 되는 주체102(2013)년 7월 27일 성대한 개관식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전승 6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는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려 수령님의 전승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승혁명사적지와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더 잘 꾸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전승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의 일군들과 전승혁명사적관 일군들,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충정의 한마음으로 낮과 밤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새로 정중히 모시고 혁명사적자료와 사적물,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갱도와 사적지안에 있는 사적건물들도 원상그대로 꾸려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전승혁명사적관을 비롯한 여러 교양장소들의 면모가 일신되고 여러동의 사적건물들과 사적갱도들이 력사주의원칙에서 수복되어 전승혁명사적지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교양거점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적지인 조국해방전쟁사적지와 창끝혁명사적지, 유평혁명사적지, 성흥혁명사적지들을 찾으시고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고 고귀한 유산인 혁명사적물들을 잘 보존관리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지울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려짐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참관과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시었다.

혁명사적교양거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혁명사적지참관을 통하여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이 미제를 타승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탁월하고 특출한 령도력, 천리혜안의 지략과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끌어주시였기때문이다.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투쟁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2(2013)년 6월 유평혁명사적지를 찾으시고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 계신 하루는 우리 당력사에 길이 새겨질 잊지 못할 날이라고, 수령님께서서는 잘 꾸려진 집무실도 아니고 작전탁도 없는 이런 수수한 농촌집, 북부산골의 추녀낮은 집에서 조국해방전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탁월한 사상과 전법을 창시하시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곳에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력사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였는가를 새 세대들에게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고 말

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950년 10월은 정말 제일 어려운 시기,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시련의 시기였다고 거듭 되뇌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골혁명사적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추녀났은 농촌집에 보존되어있는 책상과 의자, 전화기, 침대들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수수한 집에서 인민들과 똑같이 잡곡밥을 드시면서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의 작전을 구상하시고 지휘하시였다고, 수령님께서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리용하신 이 수수한 집과 사적물들이 보존되어있는 창골혁명사적지는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안에 당단체들을 조직하고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신것은 군건설력사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라고, 그 준엄한 시기에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사적내용이 깃들어있는 창골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성흥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연합사령부작전회의를 지도하시고 전쟁승리를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여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2(2013)년 7월 성흥혁명사적지를 찾으시고 조국해방전쟁의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이 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들에서 이 사적지에 전시할 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성흥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을 잘 조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이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독창적인 전법으로 미제를 타승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은 강사들이 혁명사적에 대한 해설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이동강의를 활발히 벌리는 문제, 록화편집물과 화첩들을 만들어 널리 보급하는 문제 등 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문학예술작품들도 창작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고사령부의 행로를 따라가며 소개편집물을 잘 만들어 방영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도 창작하여 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에게 수령님의 전승업적과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심어주고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부문들이 협동하여 사적자료들을 정확히 료해하고 통일적으로 고착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이 참신하고 현실성있게 진행되어 참관자들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령도업적과 전쟁시기에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전승절을 승리자의 영원한 7.27로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며 전승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었다.

전승절을 의의있게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만방에 떨치며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고 날뛰는 적들에게 우리의 신념과 배짱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맞이하는 전승절경축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고 행사전과정이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만방에 떨치는 대정치축전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7월 21일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경축행사를 크게 잘 조직하며 앞으로 해마다 전승절을 성대하게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중앙보고대회와 축포야회,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색있는 행사들을 진행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에 영원히 남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적들과의 대결전에서도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라는 뜻을 담아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 제1부의 제목을 《영원한 우리의 7.27》로 하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한 승리자들의 명절답게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특히 평양에서 진행되는 경축행사에 전국의 전쟁로병대표들을 참가시켜 정치행사의 의의를 더욱 크게 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병들에게 수여할 대표증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승광장의 단상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대표증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대해같은 은정속에 전승 59돐 경축행사는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승리자들의 대축전으로, 온 나라의 대경사로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2(2013)년에 들어서면서 년초부터 온 나라가 전승절경축열의로 들끓게 하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계기로 열병식과 평양시군중시위를 진행하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전쟁로병들과의 군민련환대회, 경축공연, 축포야회와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치행사들을 진행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위훈을 세웠으며 전후에도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공헌한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기념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전승절을 맞으며 전국로병대회들을 성대히 진행

하여 천만군민이 전쟁로병들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7.27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전국로병대회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반제혁명전쟁에서 백승을 아로새겨온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전통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경축대회로,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떨치는 의의깊은 대회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조국해방전쟁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천만군민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선군조선의 녀을 심어주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사를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않으면 먼 후날에 가서는 후대들이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잊어버릴수 있으며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우리 나라 력사에 조국해방전쟁이 있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부문에서는 조국해방전쟁사를 가르치는데서 전쟁시기 당, 국가, 군대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사에 대하여 배워주는데 기본을 두면서도 조국해방전쟁이 얼마나 가렬하고 힘겨운 전쟁이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쟁에서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얼마나 값높은 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배워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에 대하여 바로 정립해놓고 후대들이 그것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체계를 세워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 시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구가하는 노래들도 널리 창작보급되어 수령님의 령도따라 펼쳐온 전승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로동당시대의 메아리가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7. 27로 고무추동하였다.

가요 《7.27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기념훈장을 수여받았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혁명선렬들과 로병들의 영웅적투쟁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는것을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방침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전승업적